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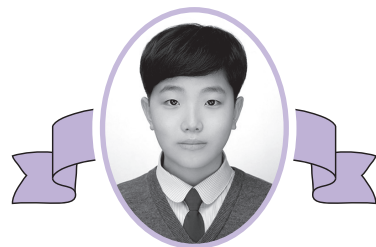
은상





국토연구원장상

코로나19로 인해 발견한 우리 지역의 소중함



김문호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2020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다.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여전히 힘들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는 2~3월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감염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냈다. 대부분의 대구사람들은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외출 외에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창밖을 내다봐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학교도 학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5월부터는 격일이긴 했지만 학교도 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외출 할 때도 마스크를 껴야하는 이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지만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속상했다.

우리 가족은 1년에 1번 이상 꼭 해외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도 조심스럽게 되어 버렸다. 주말이 되어도 주말 같지 않은 생활이 계속되자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해 아빠, 엄마에게 화도 많이 냈던 것 같다. 그런 어느 날 아빠가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시더니,

“이번 일요일에는 우리도 외출해서 산책하고 오자.” 하셨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야구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닌 산책에 마음이 설렘다.

일요일 아침,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졌다. 간단하게 물과 간식을 가지고 집을 나와 향한 곳은 동촌역이었다. ‘동촌 둘레길 걷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동촌 둘레길은 1코스 - 대구선 옛길 6.3km(동촌역 - 아양 기차길 - 지저동 벚꽃길 - 용기종기 마을 - 동촌역사(작은 도서관) - 용계역)와 2코스 - 동촌 나루터길 6.3km(용계역 - 율하교 - 금호강 생태공원 - 동촌역)로 나뉘는데 두 코스 모두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우리는 1코스를 선택해 걷기 시작했다. 동촌역에서 해맞이 다리로 강둑을 올라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 내판을 바로 발견할 수 있고 해맞이 다리를 건너서 금호강을 따라 걷기 시작하니 강 바람도 시원하고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향기가 너무 좋았다. 잘 정돈된 강변을 따라 피어있는 연한 주황색의 꽃이 너무 예뻐는데, 엄마가 원추리꽃이라고 하셨다. 처음 들어 보는 꽃 이름이었는데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다. 아양철교 밑을 지날 때 엄마가 강물에 비친 다리의 모습이 멋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잔잔한 강물이 거울처럼 다리를 비추고 있었다. 평소 차를 타고 지나칠 때는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양철교 밑에는 슈퍼맨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그림이 있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재미있는 볼거리였다. 계단을 통해 아양철교 위에 올라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 내부에 전시된 다양한 그림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시와 산문

있는 아양 기차길’이라는 글이 새겨진 조그만 바위와 만년필 모양의 조형물이 반긴다. 대구에선 아양공원 안에 시와 산문을 전시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복슬아, 정말 고맙다’라는 글이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았다. 시와 산문들을 구경 후 큰길을 따라 걷다보니 ‘웅기종기 녹색 마을’에 도착했다. 동대구역과 영천을 잇던 대구선이 외각으로 옮겨가고 대구선 동춘공원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나무들이 초록으로 만들어낸 아치 모양의 그늘도 마음에 들었고 바닥에 남아있는 옛날 기차길의 흔적도 좋았다. 기차가 다니던 철교는 지금은 육교로 바뀌었는데 엄마는 어릴 때 기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친 적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담장에 그려진 벽화들도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웅기종기 보는 재미가 있는 마을이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작은 도서관이었다. 옛날에는 동춘역사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산뜻하게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 이제는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철도길이 일부 그대로 남아있는데 철도옆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나누는 가족끼리의 대화도 좋았다. 용계역을 마지막으로 두 시간 남짓한 우리의 ‘동춘 둘레길’ 투어가 끝이 났다.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느끼는 공기의 상쾌함은 평소에 상상하지 않았던 행복이었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짧은 산책에서도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알게 되다니! 늘 옆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다. 아빠는 보물찾기하듯 우리 지역 대구 탐방을 자주 하셨다. 다음번 보물은 내가 찾아서 가보고 싶다.